

제2292호 2018.2.11. **연중 제6주일**

제2293호 2018.2.18. **사순 제1주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4 팩스 055)249-711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cathms.or.kr

주소 (5172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강론

연중 제6주일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이 그리워 필닐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닐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還의 인간사 그리워 필닐리...”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 시는 한센인(나환자)이었던 시인 한하운 씨의 “보리피리”라는 시입니다.

봄 언덕 고향이 그리지만 찾아가지 못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사가 그리지만,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눈물을 흘린다는 시인의 처절한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면 지금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서는 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 고을 밖에 거주해야 했으며 성한 사람들을 만나면 죄인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고개를 돌리고 피해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었지요. 썩어들어 가는 육신의 고통도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된 끝없는 절망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요 유일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은 자기를 내치

지 않고 따뜻이 맞아 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깃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던 그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알이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고 그분의 뜻이 먼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참다운 신앙이며 그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조정제 오딜론 신부 | 사파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1독서 레위 13,1-2,44-46

화답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0,31-1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 1,40-45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2면 사순 제1주일 강론

6면 사제의 한마디

7면 문화

※ 가톨릭마산(교구보)

'2월 11일 자'와 '2월 18일 자'는
합본으로 발행됩니다.

사순 제1주일

40일간의 여정이 지난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달력을 놓고 세어 보면 40일이 넘습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사순 시기 동안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사순 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를 잘 아는 똑똑한 신자들은 주일날 골라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매번 사순 시작이 설 명절과 맞물리는 날들이 많아서, 신자들에게 사순의 의미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광야로 내 보내지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천사들로부터 시중 받으시고, 갈릴래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역시 성령으로부터 세상이라는 광야에 내 보내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사순 시기 동안 더 특별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포는 주님의 말씀의 리플레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포회개와 후회 복음 선포를 말씀하시고 있지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항상 들어온 말이

기에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만 많이 합니다.

타인의 속죄와 회개만을 강요하고,

타인의 허물과 용서만을 강요하고,

타인의 잘못과 개선만을 강요하고,

예수님의 수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순 시기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세속으로 기울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 시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영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 하청본당 주임

사순 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순’四旬은 본디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다(1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목요일에는 금육과 단식을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사순 시기 동안 거행하는 전례는 신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뜻을 새기고자 한다.



금육재 관면
(사무 2018-29 참조)

설 명절 금육재 관면

설날인 2월 16일은 금요일로서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설날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므로 이날 금육재를 교구장 명의로 관면합니다.

교구 평협 제48차 정기총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박창균 시메온 신부)는 1월 27일 마산 웨딩그랜드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22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총회는 2017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회칙개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제25대 평협 임원과 교구 13개 지역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행사는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 봉헌과 제9회 복음화대상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 교구 평협 제25대 임원

■총회장: 한일문 하상 바오로(사파동) ■수석부회장: 백균철 바오로(사림동) ■여성부회장: 심영선 루치아(월영) ■감사: 장원홍 스테파노(철암동), 이화수 다미아노(북신동), ■마산지구회장: 황성철 에드워드(양덕동) ■창원지구회장: 문병수 베드로(사파동) ■진주지구회장: 강현근 요한(신안동) ■거제지구회장: 박하성 야고보(고현)

경화동본당 인자하신 정녀 Pr. 3,000차 기념 주회



경화동본당(주임: 정홍식 마르코 신부) 인자하신 정녀 Pr.(단장: 허옥이 젤마나)은 1월 28일 본당 성전에서 3,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정홍식 신부를 비롯하여 본당 레지오 단원 16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자하신정녀 Pr.은 1958년 4월 6일 중앙동본당에서 설립되었으며, 허옥이 단장을 비롯하여 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함께 성경 쓰기 도 하며,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양덕동본당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양덕동본당(주임: 김용민 레오나르도 신부)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단장: 박홍자 안나)은 1월 31일 본당 강당에서 2,000차 기념 주회 및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김용민 신부를 비롯하여 레지오 간부들과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은 1979년 6월 13일에 설립되었다. 단원들은 기념 주회를 통해 레지오 정신인 순명, 겸손함, 충성심을 가지고 2,500차, 3,000차 주회로 이어나가자고 다짐하였다.

교회의 어머니 :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명령(루카 9,2-6; 마태 10,1-8; 마르 6,7-13 참조)에 충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창설자시요 스승이신 주님의 탁월한 모범에 따라, 병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올해 병자의 날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1.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신비를 탁월하게 밝혀 줍니다. 십자가는 절망적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각 제자의 삶을 위한 토대로 규범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모님을 온 인류의 어머니로 부르시는 성소의 원천입니다. 특히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삶의 여정을 한결같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기를 때에 영적 물적 차원을 모두 돌봅니다.

십자가상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성모님의 영혼을 칼로 꿰뚫었지만(루카 2,35 참조), 그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 주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와 온 인류에 대한 배려를 보여 주셨고, 이와 똑같은 배려의 역할을 맡으시도록 성모님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묘사하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성모님께서 이 역할을 수행하시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역할에는 끝이 없습니다.

⋮

4. 교회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과 병자들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병자들을 위한 일련의 감동적 활동으로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왔습니다. 이 헌신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공공 의료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가톨릭 수도회들과 교구들과 그 소속 병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을 치료 과정의 중심에 두며, 또한 생명과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가치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과학적 연구를 이행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교회가 보건을 증진하고 영아 사망을 근절하며, 널리 퍼진 질병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조차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병자들을 보살피고자 애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선교회와 교구의 병원들뿐인 일부 지역에서는, 부상당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야전 병원”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매우 구체적 현실로 나타납니다.

⋮

7. 자애로우신 성모님께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을 맡겨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병든 형제자매를 환대하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병자에 대한 봉사라는 복음적 과제를 실천하는 데에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봉사 소명을 사랑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청하며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제26차 세계 병자의 날을 위하여 전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병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주 예수님과의 일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를 응원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이, 병자들, 의료계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슈바이처와 이태석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75년 1월 14일은 성자로 추앙받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태어난 날이다. 그리고 8년 전인 2010년 1월 14일은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한 날이다. 두 분은 모두 성직자(슈바이처는 개신교 루터교 목사)이자 의사로서 아프리카 오지의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 가셨다.

독일 태생의 슈바이처는 젊어서부터 철학, 신학 등에 조예가 깊었으며, 오르간 연주자로도 명성을 날렸다. 이른 나이에 목사가 된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30대 후반에 의사가 되고 곧 아프리카의 랑바레네(지금의 가봉공화국)로 가 평생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술과 강연을 통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경의 사상’을 주창하였다. 그의 사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과 ‘보편적 형제애’를 나누었던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는 인류의 형제애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태석은 목사가 된 후 의사가 된 슈바이처와 달리 의사가 되고 나서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하고 신학대학에 진학,

2001년 39세에 사제 서품을 받는다. 그리고는 곧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알려진 남부 수단인 톤즈로 가, 흠과 짚으로 병원을 짓고 말라리아, 콜레라, 나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아울러 학교를 세워 원주민 교육과 계몽에 힘쓴다. 슈바이처처럼 음악에 재질이 있던 그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공연활동도 펼친다. 2010년 대장암으로 너무도 이른 나이에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한 그의 숭고한 일생은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신자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슈바이처와 이태석의 성직자와 의사로서의 삶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6차 세계 병자의 날(2018.2.11) 담화문에서 밝혀주신 대로 병자들의 치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교회에 내리신 명령이자 은총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마태 10,8)

“(내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마르 16,18)



은퇴 신부님을 위한 기도

삶의 향기

김만수 베드로·반송분당

홀로 사제 길 43년, 홍안紅顔은 어디 갔나
반 백발에 골 주름 깊은 세월
걸어온 서러운 눈물
고통의 땀 절여있을,
미사 전 성경 읽기에 흡족하신 환한 웃음
영 성가 부르시던 그 은총의 시간들이
말씀의 사계절 흐름
그냥 이별되시기를,
이젠 아름다운 추억 오래 두고 기억을
넉넉한 영성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의 새 음성 듣는
행복 나날 되시기를,

차고 맑은 호수같이 미련 없이 잎 다 버린
깨끗한 겨울나무, 새 강물 마중물 되시어
주님의 커다란 사랑
함께 가시길,



보내실 주소(미디어국) : 1면 참조, media@cathms.or.kr/ A4, 10P, 17줄 내외, 원고지 4장 이내 분량(※ 주의사항 : 분량 초과 시 게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기도문 액자와 천연비누를 소속 본당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순을 시작하는 나에게”

쫓기듯 산길을 가는 선비가 있습니다. 달빛도 없는 늦은 밤인데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온몸은 땀에 젖었고, 머리도 헝클어진 것이 영락없는 도망자 모습입니다. 얼마나 허우적대며 갔을까? 전후좌우를 살피던 선비가 피막(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잠시 안치하여 두던,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집을 이르던 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라면 귀신이 나올까 두려워 도저히 들어가지 않겠지만 선비는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지친 선비는 몸을 누이자마자 잠이 들고 맙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허연 물체가 ‘스스스’ 선비에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원한에 목매어 죽은 처녀 귀신입니다. 잠들어 있는 선비 위에 올라타고는 목을 조르며 음산하고 기괴한 웃음을 웃습니다. “끼히히히히!” 저였다면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뜬 선비가 목을 졸리면서도 아주 시크하게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바닥으로 처녀 귀신 얼굴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잠을 청합니다. 굴욕! 귀신 생활 10년 만에 이런 강적은 처음입니다. 처녀 귀신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심기일전 다시 힘을 내서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끼하하하하 끄르르르 무섭지 않느냐!” 한쪽 눈을 살짝 뜬 선비가 말합니다. “무섭기는... 그냥 자.” 귀신 생활 최대 굴욕을 당한 처녀 귀신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귀신이 무섭지 않다면 넌, 뭐가 무섭냐?!” 선비가 몸을 뒤척이며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빗쟁이야. 난 지금 빗쟁이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 선비 말을 들은 처녀 귀신이 흐느껴 읍니다. “흐흑, 사실 나도 빗에 쪼들리다 도저히 못 견뎌서 목매 죽었답니다.” 선비는 귀신의 딱한 사정에 부동켜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갇을 수 없는 빗에 쪼들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술한 광고 중에서도 단연 많은 것이 보험과 ‘대부 업’ 광고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보험을 들고, 제대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대부 업’을 이용합니다. 그나마 대부 업체에서라도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예 고리 사채를 쓴다거나, 더 마지막까지 내몰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장기 매매 증서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끔찍하죠!). 고리 사채를 쓰다가 막장에 몰리면 선비처럼 도망 다니거나 처녀 귀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물론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ㅠㅠ).

오늘 사순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을 함께하기 위하여 많은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담배 끊고(스트레스로 병 걸립니다), 술 끊고(사람 관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고자 노력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끊기보다는, 하느님께 진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기도, 사랑과 그 시간. 그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야겠습니다.

기쁨을 향한 여정 — 사순 길잡이

내면의 샘

차분한 마음으로 사순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전례를 올리는 빠른 느낌으로 맞이합니다. 넘쳐나는 소비의 향유 속에서 뭔가를 내 안에서부터 차분한 영적 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가 될 되었다면서 게으름을 피우기에는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안셀름 그뤼신부는 사순 길잡이인 『내면의 샘』에서 그 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구체적인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비유로 든 ‘샘’이라는 말이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언제나 찰랑거리며 차오르기 위해서는 내면 깊은 곳에서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근원지를 찾는 수고로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천천히 숙독하노라면 그 의미가 사순절의 초입에서부터 아주 쉬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각자에게 굳어진 딱지처럼 익숙해진 습관 중에 단식이라는 권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새롭습니다. 외부적으로 흠어졌던 수많은 먹거리의 유혹과 내가 쏟아놓은 말들과 행동 하나하나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과 선입견들이 어떻게 제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거부감 없이 작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음식 섭취 안에 길들여진 과잉의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소홀했던 삶의 습관의 샘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맑은 마중물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사순 제1주간부터 제5주간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일주일 동안 묵상과 실천을 하도록 해주는 내용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소소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모든 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음으로 인한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침 등 사순 시기 동안 하나하나 몸과 정신을 비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안셀름 그뤼신 지음

김선태 옮김 | 204쪽 | 바오로딸 |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www.pauline.or.kr

통신판매 02)944-0944~5

facebook.com/fspcorea

카카오 스토리 채널 story.kakao.com/ch/pauline

습니다. 이 초대 앞에서 이번 사순절엔 ‘기꺼이’라는 응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걷다 보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포기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내적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영적 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일상의 무거운 걸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일부러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안셀름 그뤼신 신부는 성주간 동안 더욱 그 묵상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전례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합니다. 결국, 걸음마다 집으로 간다는 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이곳에 눌러앉을 수 없는 순례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여정 중에 있는 우리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내면의 샘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자유의 맑은 샘물을 맘껏 마실 수 있기 위한 수고로움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느님과 나, 이웃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물 같은 체험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성바오로딸 수도회)

교회의 삶에서 보는 초기 일치 공의회들(4~5세기) 9

교회의 조직과 교회들의 관계

일치 공의회가 단지 교의 정식만 선포한 것은 아니었다. 일치 공의회는 로마제국 안에 있는 모든 주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각 지역 교회는 이미 자신들만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4~5세기에 개최된 공의회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표준 법령을 제정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주교의 서임과 관련된 법령, 개별 교회들 사이의 관계 규정과 관련된 법령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항상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회 조직이 정치적·행정적·경제적 조직을 모델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주교는 한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수장이었다. 각 도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속주가 되었다. 속주의 수도의 주교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했다. 대도시의 주교는 속주 시노드를 소집할 수 있었고, 속주에 있는 주교들을 인준하고 임명했다. 이 결정은 주교 선출에 있어서 주교들의 동료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주교직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주교들 사이에 서열이 달랐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주교좌를 바꾸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는 이런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세워진 주교직은 교회의 남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교는 자신의 주교좌를 버리고 다른 주교좌를 찾아갈 수 없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바로 이 같은 규칙에 따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좌를 포기해야 했다. 그레고리우스는 중간 규모 도시의 주교였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후에 폐지되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주교좌들이 대주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어떤 주교좌들은 특별한 역할을 해 왔다. 로마제국 내의 주요한 도시의 주교좌들은 복음화를 위한 전진 기지이기도 했는데, 그 도시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르타고가 있었다. 이 도시의 주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속주 문제뿐만 아니라 속주를 초월한 훨씬 더 넓은 지역의 교회 문제에 개입해서 시노드를 소집하고 주교들을 임명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속주들은 더 큰 지역으로 그룹을 이루어 교구로 불렸다(4세기 말에는 교구가 15개). 동로마제국의 교구들 가운데서 수위권을 갖는 주교(때때로 총대주교라고 불림)들은 특권적인 역할을 갖고 있었다. 이런 역할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였다. 이 교회들은 대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치적인 중요성 때문에, 로마의 주교 다음가는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은 로마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로마제국과 교회 안에서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주요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주교좌는(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는 종교적인 역할 때문에, 특별한 영예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칼케돈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할권을 줌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의 입지를 확고하게 해 주었다.



내 기억의 한편에는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변혜연 율리아 • 시인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며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들을까?

옛 친구를 만나기 위해 땡땡 커피하우스에 갔다. 커피향이 짙게 들어찬 실내에는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았다. 투명한 유리 한 장이 당당히 안과 밖을 경계 짓는 곳, 그곳에 앉아 보이는 모습과 풍경들을 스캔해 보았다. 생각보단 재미가 있었다. 밖은 햇빛으로 반짝거렸고 안쪽은 삼삼오오 앉은 젊은이들로 푹푹하고 싱그러웠다.

친구와 한참 얘기하다 보니 더 이상 커피향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자꾸 내 눈길을 앗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위에서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친구들끼리도,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모여 앉은 동료들도 별 대화 없이 숙제를 덜한 사람처럼 스마트폰으로 뭔가에 열중하였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풍경이 낯설게 보이는 게 내 눈이 아날로그적인 탓인가.

지금의 우리들은 말을 소리로 듣기보단, 글자로 보는 것에 익숙해 그 방법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 휴대폰 위에 양손의 엄지가 입을 대신해 바쁘게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독수리 타법으로 어눌하게 말을 짓기도 한다. 타닥거리는 짧은 몇 마디로 '여행지에서 산 엽서에 너의 이름을 적고 하고픈 말을 적다 보니 향기로운 꽃이 내 맘에 만발했었다.'라는 이 감정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까?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이모티콘으로 가벼운 마음은 전하겠지만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을까? 궁금하다. 같이 웃기보다는 혼자서 피식거리는 모습에 우리 각자는 하나의 섬이 된다. 문자가 두 섬들 간에 오가는 배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자고 계속 불러대는 카톡 소리는 밤낮이 없이 두 섬 사이를 오가며 소식을 만든다. 하지만 섬에서 나와 정작 만나면 나눌 말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이율배반적이며 씁쓸하다.

잠시 눈을 감으니 기억의 한편에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손바닥만 한 집들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은 동네의 골목, 그 골목에는 여러 말소리들이 모여 살았다. 그 골목길에는 약주 한 잔한 아버지들의 구수한 노랫소리가 있었고, 모여 앉은 어머니들의 매일 반복되는 수다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골목길과 골목길이 만나는 마을 공터에는 지난밤에 동네 개들이 왜 그리 짖었노? 하는 걱정하는 소리도, 보건소 의사 선생님 오는 날마다 싸게 싸게 준비하라는 따뜻한 소리도 굴러다녔다. 그 속에서 나도 누군가와 크고 둥근 자전거 바퀴처럼 소리 내며 굴러다녔던 기억이 있다.

일상이 바빠진 지금의 우리는 문자라는 소리로 소통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 말속에 스며있는 감정에 같이 공감하자. 말하는 상대방의 숨결에 귀 기울여 주는 작은 행동이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기억할 사제

2. 18.(주일) : 故 김재석 신부 31주기

◆ 재무평의회 ◆

일 시 : 2. 13.(화) 10:00
장 소 : 교구청

◆ 본당 사목 방문 ◆

2. 13.(화) 창녕, 칠원
2. 20.(화) 의령, 대산
2. 22.(목) 용잠, 덕산동

◆ 지구장 본당 방문 ◆

2. 13.(화) 남성동, 완월동
2. 20.(화) 월남동, 월영, 금산, 문산
2. 21.(수) 진동, 남지선교, 함안,
가음동, 대방동, 대건,
태평동, 복신동, 고성
2. 22.(목) 명서동, 양곡, 하대동,
가좌동, 장평, 하청,
지세포, 거제, 고현

◆ 교구청 직원 모집 ◆

가정사목국에서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 집 : 임시직 1명

(2018. 3. 5.~2019. 5. 31.)

특이사항 : 가정사목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

제 출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
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접 수 : 2. 28.(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
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우 51727)

문 의 : 사무처 055)249-7015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견진 성사 ◆

일 정 : 2. 25.(주일)
장 소 : 월남동성당

교 구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 시 : 2. 21.(수) 10:00/ 장 소 : 양덕동성당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제425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2. 25.(주일)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예비신학교 교안 연수

일 정 : 2. 20.(화)/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청년성서모임 재교육

일 시 : 2. 23.(금) 19: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청년사목부 055)249-7065

■ 청년로고스 성경통독과정(루카복음)

일 시 : 3. 3.(토) 14:00~4.(주일) 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접 수 : 2. 25.(주일)까지
신청&문의 : 청년사목부 055)249-7065

기관·단체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월 봉사자 월례회

일 정 : 2. 12.(월)/ 장 소 : 옥봉동성당
내 용 : 13:00 - 지속적인 성체조배 기초교
육(이청준 F하비어르 신부), 14:00 - 미사,
14:30 - 조배, 15:10 - 봉사자 월례회
대 상 : 지속적인 조배회 봉사자 및 관심있
는 전 신자/ 문 의 : 010-3903-8234

■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안내

일 시 : 2. 19.(월) 13:30/ 장 소 : 사파동성당
문 의 : 총무 010-9399-5454

■ 제41차 가톨릭 농민회 정기총회
제21차 우리농 정기총회

일 시 : 2. 19.(월) 10:00/ 장 소 : 함안성당
문 의 :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2

■ 교구 평신도협의회 회장단 회의

일 시 : 2. 23.(금) 19: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평신도협의회 055)249-7114

■ 2018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기 간 : 3. 5.(월)~6. 18.(월) 주 1회, 15주
장 소 : 팔용동성당
기초과정 : 매주(월) 13:30~16:30
대 상 : 관심있는 누구나(나이, 학력, 종교 무)
수강료 : 20만 원(재료비 별도)
봉사자과정 : 매주(월) 10:00~12:00
대 상 : 기초과정 수료자, 제대꽃봉사
5년 이상,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취득자 중 1가지 해당
수강료 : 30만 원(재료비 별도)
최고지도자과정 : 매주(월) 13:30~16:30
대 상 : 봉사자과정 수료자, 민간자격증
사범1 이상 취득자로서 제대꽃봉
사 5년이상
수강료 : 35만 원(재료비 별도)
문 의 : 담당자 010-9088-4864

■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기총회

일 시 : 2. 21.(수) 19: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향심기도 피정(하느님과 나의 친밀) 3박 4일

일 시 : 2. 20.(화) 15:00~23.(금)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 피정 경험이 있으신 분
참배 : 24만 원
준비물 : 수건 및 세면도구, 개인컵
문 의 : 교육관 사무실 055)221-1891

■ 187차 ME 주말 안내 2박 3일

일 시 : 2. 23.(금) 19:00~25.(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라파엘여행사

- ◆ 3/1 이스라엘 9일 (359만원)
- ◆ 3/5 이태리, 이스라엘 12일 (439만원-KE) (399만원-AZ)
- ◆ 3/5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 ◆ 3/7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7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밝은세상의 시작은 안경이야기에서...

안 경 이 야 기 마산 합성점

하드 RGP 콘택트, 누진 다초점 전문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47-1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 맞은편
이기웅 로마노, 이태란 요안나
055)295-0888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쥬니어 음악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텔빌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 가톨릭 전주 사물놀이단

일 시 : 3. 7.(수) 11:00, 18:00
모 집 : 봉사자반 - 우리의 고유 악기로
봉사하실 분/ 초급반 - 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 환영
문 의 : 사물놀이단 010-8813-8993

기 타

■ 2018년 1학기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모 집 : 3. 31.(토)까지
대 상 :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문 의 : 031)8017-4239
<http://cyberbible.casuwon.or.kr>

■ 제주 4·3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일 시 : 2. 22.(목) 14:00~18:00
장 소 : 명동성당 코스트홀
기조강연 :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교구 교구장)
사회자 : 이규배 교수(제주국제대학교)
제발제 : 4·3의 역사적 진실과 한국 현대사에서의 의미/ 발제자 :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통합 연구센터장)/ 토론자 : 백장현 교수(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교수), 박찬식 박사(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제2발제 : 4·3의 철학적·역사적 의미/ 발제자 : 김상봉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 토론자 : 한재호 루카 신부(광주가톨릭대학 성서신학 교수), 박찬식 교수(4·3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공동주최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정의 평화위원회, 제주교구
문 의 : 홍선림 리더아 hlidia@hanmail.net

■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 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 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추가) : ~2. 28.(수)까지
문 의 :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3. 2.~4./ 3. 6.~9./ 3. 15.~17./ 3. 20.~23./ 4. 2.~4./ 4. 6.~8.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064)796-9181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3박4일 : 3. 15.(목)~18.(주일)/ 4. 26.(목)~29.(주일)
8박9일 : 3. 1.(목)~9.(금)/ 4. 12.(목)~20.(금)
40일피정 : 4. 10.(화)~5. 19.(토)
장 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 의 : 031)953-6932, 010-4906-5722

■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2박 3일)

일 시 : 3. 16.~18./ 4. 20.~22./ 5. 18.~20./ 6. 22.~24./ 9. 14.~16./ 10. 19.~21./ 11. 16.~18./ 12. 14.~16.(금)
14:00~(주일) 14:00
장 소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야고보 신부
피정비 : 15만 원/ 문 의 : 010-2816-1986

■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 시 : 3. 17.(토) 11:00~18.(주일) 16:00
장 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 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가정불화로 고통받는 부부· 부모자식·고부간/ 내적·외적 영적치유를 원하시는 분
회 비 : 5만 원/ 문 의 : 010-5490-5345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 간 : 3월~12월(2월 예비학교 무료)
혜 택 : 교육·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취업지원(최근5년평균취업률98.4%)
대 상 : 만 15~30세 남자/ 문 의 : 02)828-3600

■ 심, 지리산 효소단식

일 시 : 4. 14.(토)~ 4박 5일
장 소 : 산청 성심원 글라라의 집
내 용 : ▶효소단식 ▶지리산둘레길 걷기 ▶니시건강법 ▶디톡스(해독)요법 ▶차와함께~ ▶영화감상 ▶매일미사
모 집 : 선착순 20명/ 문 의 : 010-5018-0850

장승포본당 제19대 사목위원 개편

사목협의회장 : 서인성(시몬)
남성부회장 : 서정홍(요한 보스코)
총 무 : 송기순(시로)
재경분과위원장 : 정대명(스테파노)
전례분과위원장 : 이천수(베드로)
복음화분과위원장 : 권성우(베네딕토)
교육분과위원장 : 우옥진(율리아나)
청소년분과위원장 : 김재구(요비노)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방명자(제마)
구역분과위원장 : 박선옥(요세파)
시설분과위원장 : 김삼조(로무알도)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조명자(막달레나)
홍보분과위원장 : 송규원(바오로)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2. 12.(월) 19:00	월남동성당	남석균(마리우스)	안찬모 신부(이나시오, 삼위일체)	010-5247-9900
창원지구	2. 12.(월) 19:00	반 송 성 당	진홍장(타대오, 삼성산)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9969-5340
진해지역	2. 12.(월) 19:00	중앙동성당	이영민 신부(베드로)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	010-7566-944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살레시오회(전국 성소피정)	2. 24.(토)~25.(주일)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010-3894-1332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 24.(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대 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2730-8691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 25.(주일) 14:00	진해 중앙동성당	010-9409-0920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3.11(주일) 성모님 발현지
12박 13일, 375만원

4.11(수) 안명옥 주교와 함께하는 동부유럽
11박 12일, 38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새로운 눈이 열리는 **통영예일안과**

◆ 백내장 클리닉 ◆ 안성형 및 사시 클리닉
통영시 중앙로 240 통영메디칼 빌딩 2층 외래진료/
6층 수술센터 www.yeileyes.co.kr
원장 : 강태중 프란치스코
055)644-5419, 646-7968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할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포함 일정
429만 원(4월 2일 출발, 인솔자 동행)
가톨릭 트래블 www.catravel.co.kr
안지원 스테파노 070-4086-0207

 **(주)다무원**
목조건축종합지원센터
[친환경 전원주택, 내 손으로 집 짓기]
교육/시공/종합 컨설팅
*무료교육: 매월 3번째 (토), 오후 14~17시
위치 :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김정용 베네딕토/문의: 1899.043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헤롯 성전



예루살렘은 해발 700미터가 넘는 산위의 도시다. 제1성전은 북쪽 모리아Moriah 땅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다(창세 22,2).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매입했고(2역대 3,1)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BC 960년). 하지만 370년이 지난 뒤 바빌론 침공으로 폐허가 되고 만다. 이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 즈루바벨 성전으로 500년간 존속했다. 기원전 20년경 헤롯 임금은 이 즈루바벨 성전을 화려하게 리모델링한다. 역사에서 말하는 제3성전으로 헤롯 성전이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로마 세력을 업고 왕이 된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리를 두고 절끄럽게 대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작심하고 선택한 것이 성전 확장이다. 헤롯은 먼저 성전이 있는 땅을 넓혔다. 사방에 20m 달하는 축대를 쌓고 4만 평 가까운 평지로 만들었다. 지성소를 고칠 때는 제관들을 훈련시켜 참여시켰다. 즈루바벨 성전을 부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이었다. 물론 로마의 지원이 있었다. 착공 후 9년 외형은 완성되었지만 내부 공사는 기원후 63년경 완성된다.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다.

헤롯 성전은 희랍 건축양식을 따랐다. 성벽은 흰 돌로 감쌌고 성벽 안쪽으로 대리석 주랑을 만들었다.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복도다. 내부는 광장이었다. 이곳에선 집회도 열렸고 상행위도 허용되었다. 환전상과 양과 소를 파는 이들이 있었던 이유다(요한 2,14). 성전을 감싼 벽은 직사각형으로 북쪽 314m, 남쪽 280m, 동쪽 469m, 서쪽 485m였다. 예루살렘 구시가 지 1/6 면적이라 한다. 이후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중심이 되었다. 전례 예식 뿐 아니라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화려한 성전은 3년 뒤(AD 66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발단은 다음과 같다. 당시 유대 총독은 속주 세금이 채납되자 성전 금고에 있던 금화를 몰수했다. 군중이 항의하자 군인을 동원해 진압했다. 이렇게 해서 저항은 서서히 전쟁으로 바뀌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로마는 진압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69년). 저항군은 성전 안에서 결사항전 버티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70년 8월 성전은 불타며 무너진다. 로마군은 서쪽 벽만 남겨두고 모두 부셨다.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만 남긴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황제 개선문에는 헤롯 성전에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다. 황금 제대와 금 촛대를 가져가는 모습이다.

2018년도 신앙대학 심화과정 개강

- 일 시: **3월~11월, 매월 둘째 주(토) 13:00~17:00**
- 장 소: 교구청 1층 강당
- 대 상: 교구 신앙대학 졸업자
- 과 목: **교부학**(최원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교회론(전광진 신부: 들꽃마을 민들레 공동체 및 노인복지센터 원장)
- 참가비: 12만 원(교재비 포함)/ 신협 131-019-174079
(재)마산교구 신앙대학
- 신 청: 2. 23.(금)까지 별도 신청양식 없이 신청자 이름과 본당명을 함께 기재하여 참가비 입금
- 문 의: 동문회장 010-4581-5420



● 교구 가톨릭상담심리학회 2·3급 수강생 모집 ●

- 내 용 : 심리상담사 3급과 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 장소 및 개강일 : **3급**(15주) **2급**(14주)

	가좌동(진주)	옥포(거제)	마음의집(창원)
3급	2. 26.(월)	2. 26.(월)	2. 26.(월)
2급	3. 4.(주일)	3. 5.(월)	3. 8.(목)

- 수강료 : **2급** 30만 원, **3급** 20만 원
KEB하나 160-890028-51604,
(재)천주교마산교구
- 신청서 : cafe.daum.net/mscpa
- 접수 및 문의 : 010-4414-0478
stella0478@hanmail.net

